

서울캠 인근 평균 월세값 71.4만원…서울 대학가 2위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서울】서울캠 근처 원룸 평균 월세가 서울 주요 대학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캠 인근 원룸 평균 월세와 관리비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2위를 기록했다. 다방에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분석은 보증금 1000만원, 전용면적 33㎡ 이하인 원룸을 기준으로 조사했다.

서울캠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63.4만원, 관리비는 8만원으로, 합치면 71.4만원이다. 81만원으로 1위를 기록한 이화여대 바로 다음이다. 3위는 연세대(68.4만원), 4위는 고려대(68.2만원) 순이다. 우리학교 인근에 위치한 한국외대는 6위(65.9만원), 서울시립대는 10위권 밖이다. 다방이 같은 조건으로 2025년 1월 분석한 자료에서도 우리학교 인근 원룸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합친 금액은 70만 원으로, 과거와 큰 차이는 없었다.

우리학교 인근 원룸값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다. 경영대학원 부동

산학과 원재웅(도시및지역계획학) 교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유학생 수, 비교적 낮은 기숙사 수용률 등을 꼽았다. 원 교수는 “외대, 시립대 등에 비해 우리학교 학생 수가 많다”며 “관리비는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임대료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2024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 수는 19,903명이다. 서울 소재 학교 중 1위, 유학생 수는 4,144명으로 2위다. 기숙사 수용률은 17.5%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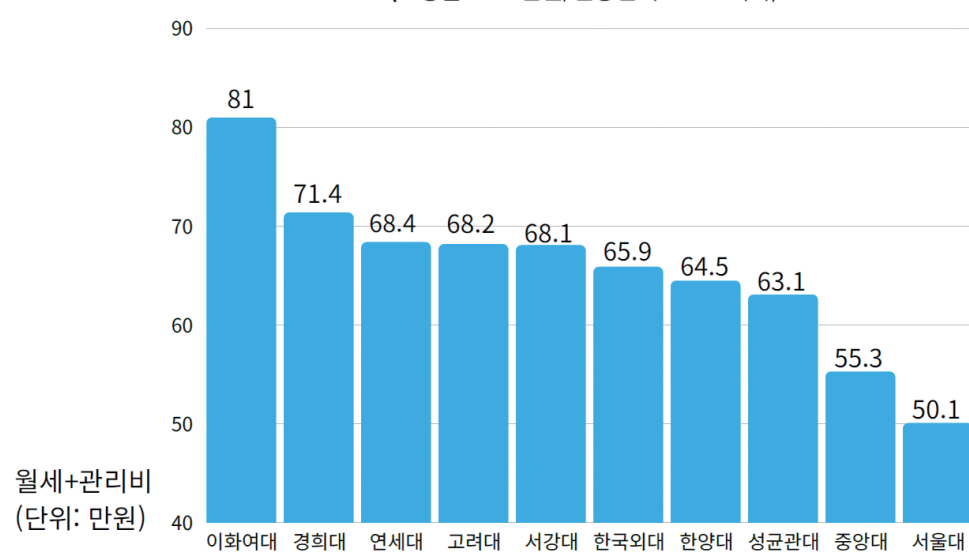
회기동 우리부동산 공인중개사 유용기 씨는 “경희대는 유학생도 많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원룸 수요가 많다”며 “수요에 비해 공급은 한정되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축이나 리모델링된 원룸이 많은 것도 높아진 월세의 배경이다. 학교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물가도 상승했고 학생 필요에 부합되게 원룸 환경이 개선됐다”며 “임대인들이 투자한 비용 회수를 위해 월세를 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원 교수도 “건설비 상승과 같은 건축 공급가 상승으로 인해 월세값이 높게 책정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캠퍼스 인근 지하철역이 경의중앙선, 경춘선, 1호선의 환승역인 점도 관련 있다. 회기동 알파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완율 씨는 “회기동은 역 주변 원룸이 많고 경의중앙선도 다녀 교통이 편리하다”며 “직장인 수요도 겹쳐 원룸 가격이 높게 형성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

25년 2학기(7월) 서울 주요 대학별 원룸 평균 월세+관리비 비교
(보증금 1000만원/전용면적 33㎡ 이하)



출처: 다방앱 매물 데이터

수송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7월 회기역 일 평균 이용객은 57,027명이다. 경원선(청량리~연천) 노선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어국문학 다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최근 서울캠 근처에 원룸을 구한 고경범(스페인어학 2020) 씨는 “지난 학기까지 국제캠 근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다 회기로 자취방을

옮기며 높은 월세를 더욱 체감했다”고 말했다. 고 씨가 계약한 원룸은 월세 70만 원, 관리비 8만 원이다. 이어, “아무래도 대학이 밀집해 있어 학생 수요가 많다 보니 집주인들이 월세를 쉽게 올리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통학 시간을 감수하더라도 인근 지역 원룸을 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있다”고 말했다.

개강 앞두고 학교 곳곳 리모델링, 학생회관은 9월 중순까지

오승현 기자 dirk0212@khu.ac.kr

【서울】지난 방학 동안 건물 보수 작업이 진행됐다. 다만, 일부 시설은 예정된 공사 일정이 지연돼 불편이 예상된다.

정경대는 3, 4층 8개 강의실의 고정식 책상과 의자를 이동식으로 교체했다. 이를 위해 바닥 평탄화 과정과 타일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정경대 행정실 측은 “고정식 책상과 의자는 좌석 간 간격이 좁고, 이동이 불편해 학생들 불만이 많았다. 또 협동학습이나 토의형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 적용이 어려웠다”며 리모델링 배경을 밝혔다.

과거 누수 문제가 제기됐던 한의대 로비 천장에는 소방설비 개선과 석고보드 교체 공사가 지난달 17일 완료됐다. 교수회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은 오는 10월 17일까지 옥상 방수공사를 진행한다.

공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번 방학 마무리가 목표였던 학생회관 4층 석면 철거를 비롯한



정경대 3, 4층 8개 강의실의 고정식 책상과 의자를 이동식으로 교체했다.

(사진=오승현 기자)

환경개선공사와 전 층 화장실 공사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학생회관 4층 공간을 사용하는 동아리를 위해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 측은 대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동연 양명호(생물학

2023) 회장은 “동아리방 사용 제한 공백기 동안 각 동아리가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조절하겠다”며 “개강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다”고 말했다.

학생회관 4층 동아리방을 사용하

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동아리 MDOP 강민서(경제학 2022) 회장은 “동아리방 사용 재개 내용을 전달받은 게 없다”며 “총동연 측에서 면접 공간 제공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밝

혔다. 이어 “청운관 강의실 등을 빌릴 계획은 세웠는데, 오디션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강의실 대여가 원활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중앙야구동아리 BRAVES 안정빈(무역학 2021) 회장은 “우리 동아리는 개강 직후 설국교류전, 역동전, 동아리박람회 등 중요한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며 “인근 카페나 공간대여를 통해 회의하고 있어 큰 불편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학생지원센터는 “늦어도 9월 12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다”며 “공사가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도 동아리방 사용이 가능하면 각 동아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까지로 예정됐던 중앙도서관 승강기 공사도 옥상 방수공사로 인해 10월 31일로 연기됐다. 중앙도서관 김지영 차장은 “중앙도서관의 누수 때문에 물이 계속 떨어져 승강기 공사 시 위험하다”며 “옥상 방수공사가 마무리돼 승강기 교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